

여당 대표로 돌아온 한동훈, 대통령과 관계 설정 최대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기 인수 후 최고위원 당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요한·김민진·장동혁 최고위원, 한동훈 당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진중호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회복'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권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파상공세'를 퍼붓는 상황을 돌파하고, 최악의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이번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도 한동훈 체제 앞에 놓인 난제들이다. 한 대표는 우선 취임하자마자 이번 전당대회로 다시 표면화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의 '옛 보스'로 일컬어지는 윤 대통령과 충돌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측근인 김경을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로 표현하고, 이를 계기로 한 대통령실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이를 일축하며 언론에 공개한 한 대표의 '1차 충돌'부터 과거 볼 수 없었던 생경한 장면이었다.

총선 직전 '이종섭·황상무 거취 논란'으로 한 차례 더 충돌했던 양측의 갈등은 총선 이후 잠시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 여사 문자 공개'라는 전례를 찾지 못한 사건이 다시 돌출했다.

김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직후 한 대표에게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보냈지만, 한 대표

무너진 신뢰 관계 회복 '관심' 진흙탕 싸움 전대 후유증 극복 미래 권력 우뚝설지 여부 주목

가 이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진운(진윤석열)계가 이를 문제 삼아 한 대표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제기했고, 경쟁 후보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게 확인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자 공개의 배경으로 '용산'이 주목받았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내놓은 '공적·사적 관계 구분' 발언과 '김 여사는 사과 의사가 없었다'는 반박 등으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당정 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을 공약한 한 대표가 향후 당 쇄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재차 파열음을 내며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진운계와 다시 충돌하고,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경우 양측의 갈등은 봉합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 진운계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당정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본인이 대통령에 각을 세우면 할 수 없고, 협조하면 잘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만큼, 양측 관계가 마냥 악화일로로 치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남게 남았고, 자신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따로 가는 여당'을 택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를 밀고오는 흐름 속에서 당원들이 선택한 한 대표를 과거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처럼 완력으로 밀어내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 대통령과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한 대표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서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충돌보다는 전략적 공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도 한 대표가 당내 기반과 리더십을 얼마나 확고히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인터뷰 - '호남 유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민형배 의원

"민주당 지도부 수도권 쏠림 심화 호남의 정당한 몫 꼭 확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진)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 선출직 당직에 도전해 '호남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가 대부분 수도권 의원으로 채워진다. 지역출신 최고위가 있어야 분권이나 균형발전 과제를 민주당이 놓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도 8명의 후보 중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 주요 선출직이 수도권 중심으로 채워지고 있어 '호남 정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를 중단없이,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민생 사안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부세가 감소하면 직접적으로 지역이 타격을 받는다"며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좀 더 사이즈가 큰 과제를 민주당의 의제로 끌고 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예컨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경찰, 국정원 등등 주요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까지 당의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며 "검찰독재 타도라는 시대의 요청을 지역 발전과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에 대한 애정도 감추지 않았다. 민 의원은 "지역발전과 연관된 의제를 당의 목표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RE100' 'AI' 같은 미래가치를 민주당+호남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 전력 부족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까지 지방 이전이 의제로 떠올랐다. 수도권 최고위원은 특정 지역 이전을 주장하기 어렵다. 저는 할 수 있고, 실제로 호남으로 오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일에 임하는 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수 171개는 의결중족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혁법안, 민생법안과 관련하여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개혁 물량을 투하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없이 거부권만 행사할 수는 없다"며 "그중에 몇 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성과를 더 큰 성과로 이어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다. 그런 태도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호남에 권리당원이 대거 분포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특성에 대해서는 "이번주 부울경, 충청까지 마지막 대략 23%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마친다. 호남이 33%, 서울·경기가 42% 정도 된다"면서 "호남 권리당원 분들이 저의 이력과 활동을 잘 알고 계신다. 호남에서 반등해 수도권으로 밀고 가면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선거 정치지형에 대해서는 "두 개의 도전이 형성될 것이다. 하나는 국힘,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20일 전당대회에서 지방선거 참여를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국힘 앞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협력하겠지만 호남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주권자에게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크게 긴장해야 한다. 이럴 때 호남 최고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1대 이후 호남 국회의원의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이 저까지 포함해 네 번째다. 여태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면서 "호남만이 아니라, 호남을 포함한 지역의 요청을 대변하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도와주시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지도부 유일한 호남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 5·18 때 통역 맡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요한(비례)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순천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등 호남과의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으로 2012년 귀화하면서 얀은 성씨와 본관은 순천 인씨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 작업을 이끌기도 했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은 이력도 있어 광주와의 인연도 있다. 그는 1987년 서양인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의료인으로 활동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유전 벨 선교사의 증손자다. '백안의 한국인'으로 잘 알려진 그의 가문은 4대째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육·의료 활동을 해왔다.

한국형 구급차 개발, 대북 의료지원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해제, 지도부·중진·진운(진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합지 출마 등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에 신청해 8번 순번을 받아 당선됐다. 총선 기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